

침단장비 갖추고도 '오보청' 못벗은 광주기상청

침통더위 꺾인다더니 다음날 폭염 특보 발령

10mm 비 예보에 280mm 물 폭탄... 도로 유실도

광주기상청은 지난 30일 오후 5시 "31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29~33도 분포로 전남보다 다소 낮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오후 들어 5~40mm가량 소나기가 내려 폭염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있게 언급했다.

하루 뒤인 31일 광주·전남지역의 날씨는 광주기상청 발표 내용을 보란 듯 따돌렸다. 광주·전남지역은 연일 낮 최고기온을 경신하면서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예보가 잇따라 빗나가면서 '양치기'로 전락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로 기상 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보(誤報)가 잇따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전날 오후 5시 '단기 예보 통보문'을 통해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들어 5~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도 한풀 꺾일 것"이라며 "소나기로 낮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염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영광에 1.5mm의 소나기가 내린 게 전부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이날 오후 2시50분 36.5도를 기록, 전남(34.5도) 기록한 낮 최고기온 최고치를 훌쩍 넘어섰다.

기상청은 그나마 무더위가 한창인 오후 1시에야 광주와 나주 등 전남 13개 시·군

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보 취지는 커녕, 발표했다는 생색만 내는 식이다.

폭염 주의보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를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상청은 1일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광주기상청은 지난 18일 화순에 28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예측도 하지 못했다. 단지 10~40mm의 비가 예상되며 국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만 예보했다.

기상청이 이날 새벽 5시에 발표한 '단기 예보'를 보면,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40mm의 장맛비가 예상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쏟아진 비는 화순(이양) 281mm를 비롯해 ▲순천(주암) 268mm ▲나주(다도) 267mm ▲고흥 190.5mm ▲장흥 132.5mm ▲보성

114.5mm ▲장성 108.5mm ▲광주 66mm 등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를 예상하지 못한 까닭에 순천과 화순에서 주택 16가구와 오리 농장이 침수피해를 입고, 전남지역 곳곳에선 도로와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잇따른 예보 실패에 대해 광주기상청은 "본청과 유기적으로 예보 협의를 하고 최신 관측 장비를 통해 최상의 예보를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맞추기엔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언론이나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져 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내일 광주에 비가 오느냐"고 물었던 것이 이제는 "내일 몇 시쯤 광주에 비가 시작돼, 언제쯤 그치며, 그 양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달출 10:18
해질 19:36 달짐 22:15

선박 항해 주의하세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전부터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5/31	보성	비	24/28
목포	비	25/30	순천	비	26/31
여수	비	26/27	영광	비	25/31
나주	비	25/31	진도	비	25/30
완도	비	25/30	전주	비	25/34
구례	비	24/31	군산	비	25/33
강진	비	25/30	남원	비	24/33
해남	비	25/30	흑산도	비	24/27
장성	비	24/30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면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2.0~4.0
남해	남부	북동~동	1.0~2.5	북동~동	2.0~4.0
	면바다	동~남동	2.0~4.0	동~남동	3.0~5.0

◇생활지수

식중독	60
운동	40
빨래	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13	10:26	17:30	22:36
여수	11:57	05:42	23:44	17:58

◇주간 날씨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	☁	☁	☁	☁	☁	☁
25/28	25/28	25/31	25/32	25/33	24/33	25/32

광주지역 성형외과 83.9% 심장제세동기 없다

전국 성형외과 10곳 중 8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운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를 둔 전국 병의원 1천118곳 중 80%인 89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특히 전국 성형외과의 30%가 몰려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전체 332곳 중 98.5%인 32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없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성형외과가 많은 서초구 역시 전체 54곳

중 1곳에만 심장제세동기가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심장제세동기 미보유율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83.9%), 부산(82.9%), 대구(82.9%), 대전(8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장제세동기 보유율은 경북이 62.5%로 가장 높았고, 경남(47.6%), 강원(45.8%), 전남(43.8%) 등의 순이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세동마을 들녘에서 '제1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재현된 가운데 서창 만드리 보존회 회원들이 김베기를 마치고 들노래를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석 열차 승차권 12~13일 예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이달 12일부터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12일에는 경부·경부·충북·경북선,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

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인 O(중부내륙열차)·V(협곡열차)·S(남도해양열차)·DMZ 트레인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의 승차권이 각각 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여수서 안마시술소 가장 성매매 업주 등 적발

대규모 객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여수지역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수경찰청은 지난 31일 5층 건물 통째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지하에 마련한 밀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62)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비롯해 성매매를 한 손님 등 모두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을 고용, 1차로 안마 시술을 한 뒤 2차로 지하에 마련한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다 이날 새벽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소는 지상 5층 건물에 객실 33개를 갖추고 건물 안팎에 CCTV 8대를 설치하고 카운터와 내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치안 취약 시간대 순찰인력 집중 투입

'지역경찰 탄력 근무제' 시행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도시에서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찰 탄력 근무제'를 전국 932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도시에서는 치안 취약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자원근무 활성화 ▲야간전중제 ▲취약 시간 집중제 등 도심형 순찰근무 제도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자원근무 활성화는 불필요한 주간 자원근무를 제한해 야간 자원근무자를 늘리는 제도다.

야간전중제는 기존 순찰팀과 별도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순찰팀을 운영하는 것이며, 취약시간 집중제는 야간에 2개의 순찰팀이 합동 근무하는 제도다.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형태를 바꾸기로 한 것은 도심에서는 야간에 112 신고와 같은 치안 수요가 낮아 비해 월등히 높지만 근무하는 경찰관은 주간에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